

화 추세가 뚜렷하며 이는 자유로워진 문학작품의 소재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의 교수인 Law Yu Fai의 「Self-Initiative in Education Reform: A Report on Some Case Studies in Guangdong Province, P.R.China」는 사실상 여성의 지위와는 별 상관인 없는 논문이다. 결론에서는 농촌지역에서 노동력 및 교육비의 부족과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 때문에 여아들의 진학률이 낮아지고 심지어는 중퇴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본문에서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본론은 주로 실용영어훈련원, T.V. 학교등 새로운 교육제도에 대한 소개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이 책에는 Law Yu Fai 교수의 논문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전체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본서에서 여러 저자들은 사회주의 중국 여성의 운명을 다양한 차원에서 평가하고 있지만 공산당의 여성해방관 및 여성정책의 기본목표에 대해서는 일치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생산관계를 개선하거나 생산력을 증대시킴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예속을 궁극적으로 극복하는 것을 가능하다고 여겨 여성정책의 방향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기본 원칙에 부합되도록 설정해 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여성문제는 혼인 등에 있어 여성을 억압하는 봉건적 악습을 철폐하는 과업을 제외하고는 공산당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경제목표를 달성함으로써 해결된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특히 개혁기에 여성을 속박하는 사회적 관행이 부활되는 조짐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이같은 공산당의 정치적 입장이 지지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결론은 본서의 출판을 계기로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가 본격화되어 관련 지식의 폭과 깊이가 향상되어야만 내 려질 수 있을 것이다.

장경섭, 서울대 사회학과교수

황성모 저 『통일독일 현장연구』 서울:도서출판 일념, 1990

### 전 상 인

황성모교수가 지은 『독일통일 현장연구』는 두가지 측면에서 독자들의 흥미를 불러 일으킨다. 우선 이 저서가 보기 드물게 독일통일에 관한 '현장'연구라는 점이요. 1989년 11월, 40년간이나 동서독을 가로막던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이후 독일 통일이 가속화되던 1990년 여름에 황성모 교수는 "분단독일의 양측이 통일로 가는 변화의 측면을 르포르타주 형식으로 관찰" (88쪽)하기 위해 통일 현장을 직접 방문하였다. 그리하여 이 책은 통독'과정'을 현장감있게 독자에게 전달해 줄 수 있게 되었다. 『독일통일 현장연구』는 또한 동서독의 통합으로부터 한반도 통일에 관한 示唆와 교훈을 얻기를 바라는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그것은 “통일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하나의 恨이 되어 있는 이상… 한풀이를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심정” (4쪽)을 갖게 된 황성모 교수가 독일방문 중 출간 “독일통일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심각하게 검토” (1쪽)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책은 본론격인 4개의 章과 卷末의 자료편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은 「분단과 독일통일의 역사」라는 제목하에 동서독으로의 분단 및 통일과정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전후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독일 “분단의 시작” (18쪽)과 동서 냉전체제하에서 “깊어만 가는 분단의 골”(35쪽)을 소개한 다음, “두개의 독일”이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 (37쪽)로 뚜렷히 대비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1961년, 동독내에 있던 舊독일 수도를 양분하는 콘크리트 장벽이 들어서자 베를린 시민들은 “고립감과 절망감을 한층 더 뼈저리게 느끼게”되었으며 “그 절망감은 곧 독일의 통일이 이제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가는데 대한 강박감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졸이게 했다” (53쪽)고 황 교수는 설명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동독의 1980년대는 “인민혁명의 10년간” (67쪽)이었다. 특히 1985년 소련에서 고르바초프가 집권하자, “냉전적 대결과 분열이 녹기 시작한 봄바람은 의외로 동북쪽에서 불기 시작” (75쪽)했고, “모스크바의 방향전환이 독일분단의 현실논리를 밑바닥에서부터 흔들어 놓았던 것이다.”(76쪽) 1989년에 들어와 동유럽을 뒤흔들어 놓았던 인민혁명이 독재정권을 차례차례로 와해시키는 물결속에 동독인민들의 정권타도 운동도 가속화되었고, 마침내 그해 11월 9일 베를린장벽이 무너지는 “실로 꿈같은 일” (78쪽)이 벌어졌다. 동독혁명은 “뚜렷한 주동세력, 선동자 없이 전체 주민 속에서 전개된 자연발생적인 혁명이며,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에 의한 반독재, 평화적 성격의 혁명”이었으며, “자연스럽게 살겠다는 인민대중의 요구를 억지로 거역하는 일은 조만간 제거되든가 아니면 스스로 제거될 수 밖에 없다는 시대정신을 상징하는 것” (13쪽)이기도 하였다.

「동독현장을 가다」라는 제목의 제 2장은 기행문 형식을 주로 빈 것으로, 1950년대 말 독일에서 유학을 하였던 황성모 교수가 1990년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그곳을 다시 여행하는 과정에서 쓰여진 독일통일 현장보고서이다. 여기서 황 교수는 “사실상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역사이론” 곧, “자본주의가 붕괴하면서 사회주의가 등장한다는 역사법칙이 분단통일이 통일독일로 변화되면서 어떻게 반증되고 있는가” (87쪽)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황성모 교수는 완전히 야시장으로 변하여 “가짜도 꽤 많다”는 베를린장벽의 파편을 팔고 있는 브란덴브르크門 근처에서 시대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으며, 동독제 ‘트라비’ 자동차들을 서독차들이 앞서 질주할 때마다 곤혹스러운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동독주민들의 표정도 놓치지 않고 있다. 그 외에 켐니츠市가 칼마르크스市의 이름을 벗고 다시 원래의 이름으로 復名하는 과정, “이념에서 살고 현실에 좌절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통독 이후 모습, 그리고 과거 사회주의 경제지도자들을 양성해 왔던 브루노 로이셔 경제대학이 시장경제에로의 전환문제를 다루는 교과목 편성에 전력을 다 하면서 그에 따라 교수진 개편을 추진하는 내용들도 흥미롭게 다루고 있다.

評者が 보기에 『통일독일 현장연구』의 白眉는 제 3장 「통일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다. 이 장에서는 兩獨 통합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던 제반 문제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통일에 대한 맹목적 환상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것으로서, 통일을 준비하는 작금의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것들이다. 황성모 교수는 1990년 7월 1일에 단행된 동서독 화폐통합이 구동독주민들에게 “기쁨이라기 보다는 냉정한 경제적 현실 앞에서 착잡한 심정을 일으키게” (133쪽) 할 수 밖에 없었던 연유를 설명하고 있으며, “선택의 여지없이 시장경제로 재편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 (134쪽)에서 연유하는 기업파산과 실업률증가 및 그에 따라 파생하는 사회문제의 대두를 우려하고 있다.

또한 소위 통일비용의 부담을 둘러싼 독일 국내정치적 난기류, 구동독정부가 소유하고 있던 인민소유 기업체와 각종 콤포나트 및 부동산을 처분하는 문제, 슈타지라고 불리던 구동독 국가안전부의 해체, 소련군의 철수, 학교교육 개혁 등 독일은 통합의 과정에서 실로 수많은 난관에 봉착하였다.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은 통합 이전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었고, 예견했다라도 그 심각성의 정도에서 적중하지 못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황 교수가 독일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감각의 전환” (136쪽)을 서두르고 있는 동독내 기업가들이나 노동자들 속에서 하나의 희망을 발견하고 있으며, 비록 지금은 부담스럽지만 궁극적으로는 전체 독일경제의 발전을 기약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통일비용을 “하나의 정치적 투자” (154쪽)로 간주하기도 한다.

「통일후의 문제」를 다루는 제 4장은 이 책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황성모 교수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체도나 경제체제와 같은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229쪽)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 “마음의 통일은 아직도 멀다” (229쪽)고 결론을 내린다. 그에 의하면 통독이후 동독사람들이 “신민주의자”의 입장에서 서독인들을 “제국주의자”로 보게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독일 사람으로서의 일체감 상실이 증폭되는 현상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30-231쪽). 독일인들을 심리적으로 갈라 놓는 원천적인 이유에 대해서 황 교수는 “생활수준의 차이” (233쪽)라고 잘라 말한다.

황성모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독일통일의 과정 및 그 이후 단계에서 발생한 제반 문제는 한국의 통일에 대해 대단히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경제체제의 통합과 흡수, 한쪽 정치체제의 일반적 몰락에 따른 기존 통치기구의 운명, 분단 양쪽의 생활수준의 차이에 따른 문화·심리적 이질화, 외국군의 철수문제 등은 통독과정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배워야 하는 구체적인 교훈들이다. 이와 같은 실천적인 측면에서만 아니라 학문적 차원에서도 독일과 한국의 통일은 매우 흥미로운 비교대상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틀림없기로 마찬가지인 것은 누구보다도 황성모 교수가 그러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최적임자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안타깝고도 애석하게도 『통일독일의 현장연구』는 황 교수의 마지막 저서가 되고 말았다. 1992년 9월 30일 “학계의 큰 별” (『한국사회학회소식』 제 92-4호)이 진 것이다. 당신이 그렇게도 소망하던 한반도의 통일과

함께, 이 자리를 빌어 그저 故人의 명복을 빌 뿐이다.

전상인, 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